

말나온 김에 한가지 더 말해보면 CPU의 클럭을 증가시키는 작업은 단위시간에 CPU가 하는 작업이 증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지점으로 나르는 일로 비유하면 클럭증가는 단위 시간당 물건(전하,전류)을 나르는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에너지(전류)가 필요하고 결국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전압을 내리면 오버클럭이 풀리는 경우도 있으나 전압 다이어트라고 오버클럭을 유지한 상태로 사용가능한 최소한의 전력을 찾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부품마다 다르니 노가다로 찾는 수밖에 (...)

일단 전압다이어트를 하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고, CPU나 HT(인텔은 QPI)의 온도도 내려가게 됩니다.

$$\cdot \underset{\text{(단위: A)}}{\underbrace{R}} = \frac{\text{전압 (단위: V)}}{\underset{\text{(단위: } \Omega \text{)}}{R}}$$

$$\cdot \underset{\text{(단위: W)}}{\text{전력}} = \text{전압} \times \text{전류}$$